



농수산물식품 수출

Zoom In 78호

I 국산 토마토 드디어 캐나다 입성



II 국산 버섯류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식탁으로!!



III 단단하고 수량 많은
우리 여름 딸기 "미하"



농수산물식품 수출 Zoom In 78호 2020. 9. 25(금)

‘20.8.31까지 농수산물식품 수출 전년 동기 대비 0.4% 증가한 63.3억\$

부류별

신선	가공	수산
1.0% 860백만불	6.2% 3,964백만불	11.8% 1,485백만불
+ 김치, 닭고기, 유자차 - 인삼류, 파프리카, 딸기	+ 쫄면, 라면, 쌀가공식품 - 음료, 커피조제품, 비스킷	+ 바지락, 오징어 - 김, 참치, 굴

국가별

* 쌀 무상원조 실적('19(2.0백만불), '20(3.6)) 제외

*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반영

미국 ▶ 대형마트 연계 과실류(배) 판촉 968백만불(29.1%)	라면(57%), 김(28%) 배(△53%), 굴(△28%)
EU ▶ 유튜브 연계 가공식품(떡볶이) 판촉 372백만불(0.4%)	라면(59%), 참치(5%) 대구(△27%), 음료(△11%)
라면(48%), 굴(5%) ▶ SNS 연계 가공식품(떡볶이) 판촉 인삼류(△26%), 설탕(△11%)	홍콩 275백만불(△0.6%)
라면(14%), 닭고기(13%) ▶ 인도네시아 유튜브 연계 농식품 종합 판촉 참치(24%), 음료(△11%)	ASEAN 1,189백만불(△1.2%)
라면(45%), 인삼류(3%) ▶ 리지아 바오베이 연계 영유아식품 판촉 김(25%), 조제분유(△21%) ▶ SNS 연계 농식품 종합 판촉	중국 1,006백만불(△4.9%)
김치(29%), 김(2%) 참치(△20%), 파프리카(△6%)	일본 1,302백만불(△9.3%)

☆ : 15%이상 / : 5~15% / : 0~5% / : 0~△5% / : △5~△15% / : △15%이하

품목별 이슈

* 실적 : '20. 1. 1 ~ 8.31



- 김치

◇ 김치 효능이 담긴 QR코드 활용한 홍보로 인지도 확대

97,913천불(40.3%)

▶ 주요 수출국 : 일본(48,633천불, 29.3%), 미국(16,354, 69.1), 홍콩(4,961, 48.5), 호주(4,144, 76.4), 대만(3,736, 23.7), 네덜란드(3,177, 5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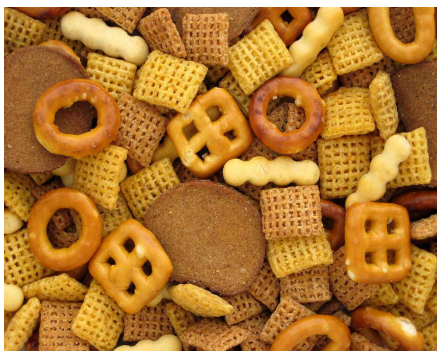
- 라면

◇ SNS, 유튜브를 통한 한국 라면 레시피 공유 및 먹방 인기



405,439천불(36.7%)

▶ 주요 수출국 : 중국(105,790천불, 44.9% ↑), 미국(53,208, 56.7), 일본(32,396, 48.9), 태국(18,864, 52.1), 대만(18,298, 32.9), 호주(15,783, 20.1)



- 과자류

◇ 간단히 섭취할 수 있고, 열량 높은 과자류 수요 증가

328,318천불(15.9%)

▶ 주요 수출국 : 미국(80,844천불, 33.7%), 일본(59,807, 3.5), 중국(51,312, 25.6), 대만(23,207, 69.4), 홍콩(18,862, 42.4), 호주(16,216, △2.3)

☆ 자세한 동향관련 내용은 aT kati(www.kati.net) > 수출동향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농수산물식품 수출 Zoom In>은 월 1회 발행됩니다 (문의처 : aT 수출기획부 061-931-0816,7)

식물검역 이슈



국산 토마토 드디어 캐나다 입성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20년 9월 1일자로 국산 토마토를 캐나다로 수출할 수 있는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 캐나다 수출검역요령」을 제정·발효하였다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16년 1월 한국산 토마토 수출 허용 요청하여 '20년 5월 양국이 검역 요건에 합의하였으며, '20년 7월 캐나다 측이 한국산 토마토 최종 수입 허용을 알려움에 따라 수출 고시를 최종 공고하게 되었다.

캐나다로 토마토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 검역 단지 등록하고, 참여 농가는 병해충 차단 온실에서 캐나다 측 우려 병해충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적절한 방제 조치 및 병해충 관리, 포장 상자의 외부에는 역추적을 위한 선과장과 온실의 코드 또는 명칭을 표기하여 검역본부의 수출 검역에 합격하고 수출식물위생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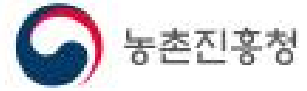
국산 버섯류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식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국산 입병재배 버섯류 7종을 이스라엘로 수출하기 위한 검역 협상이 마무리되어 9월 21일 부터 수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20년 3월 코로나19의 발생으로 이스라엘 현지에서의 타국가산 버섯류의 수입 통제로 한국산 버섯류의 이스라엘 수출 가능 여부에 대한 업체 문의에 발 빠르게 이스라엘 측에 입병재배 버섯류의 수출 허용을 신속히 공식 요청하였다('20.4월). 또한 검역본부는 주요 병해충, 생산 및 포장 시설의 위생관리, 버섯별 재배 생산과정 과정에 대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측에 송부하여 전략적으로 검역 협상을 진행하였고, 이스라엘 측에서 최종 수입 허용을 알려와 ('20년 7월) 「한국산 입병재배 버섯류의 이스라엘 수출검역요령」을 최종 고시하게 되었다. 추후 검역본부는 생산자단체, 관련 수출업체 등에 홍보를 진행하고, 생산시설에 대한 등록 및 승인 절차를 진행하여 수출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 외국의 농산물 수출검역요건은 농림축산검역본부(www.qia.go.kr) > 수출식물검역정보 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 식물검역 이슈는 월 1회 발행됩니다. (문의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지원과 054-912-0623)

농진청 이슈



단단하고 수량 많은 우리 여름 딸기 "미하"

농촌진흥청은 단단하고 수량이 많은 여름 딸기 "미하"를 개발해 농가에 보급하고 있다. 우리나라 여름 딸기의 생산량은 연간 약 500톤이다. 한동안 여름 딸기 대부분이 해외에 수출되었지만, 2010년부터 국내 여름 딸기 소비가 점차 늘어나면서 현재 수출은 거의 중단된 상태다.

"미하"는 더운 여름철에도 기형과 발생률이 적고 과육이 단단해 수출용 여름 딸기로서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또한 딸기가 거의 생산되지 않는 5월~11월에도 안정적으로 출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미하" 수량은 10a당 약 3.3~4.2톤으로 기존 겨울에 생산하는 딸기만큼 많은 편이다. 단단한 정도(경도)는 36.2g/mm³로 이전에 개발된 여름 딸기 "고하"(26.1g/mm³)보다 우수하다. 과실 모양은 원추형이고 크기는 중형(평균 13.4g)으로 큰 편이며, 고온에서도 흰가루병에 잘 걸리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전라북도 무주와 강원도 평창에서 "미하"를 시범 재배 중이며, 10월까지 어미그루(모주) 신청을 받아 보급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은 국산 여름딸기 "미하"는 고온기에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특징이 있고 경도가 높으면서 수량도 많아 국내 소비는 물론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농진청 이슈 문의처 : 농촌진흥청 수출농업지원과 (063-238-0674)